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점심은 유숙정 권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점심은 차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3. '새가족양육반' 교육(4주)이 오늘(3/10)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가족 및 혹 기존성도 가운데 신앙점점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김전희 목사님(010-7900-7179)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하늘문의 만나> 3월호가 출간되어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묵상용·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3월 17일	3월 24일	3월 31일	4월 7일
예배기도(2부)	이희문 집사	신태식 장로	유중열 장로	김윤식 장로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유숙정 권사 가정	차미자 집사 가정	가정의 주일	황희용 권사 주일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곽성미 집사, 박노영 집사)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힘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김은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윤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 SUNDAY A.M WORSHIP 주일 낮예배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128번(사순절 5)
*경배찬송	69장(통 33장)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 찬양과 기도

찬송	308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이회문집사	

###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창 32:22-31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신앙의 길, 축복의 길’	허영진 목사
마무리기도	허영진 목사	

###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결 단 송 .....	620장 .....	다 같 이
*축 도 .....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SUNDAY P.M WORSHIP 주일 오후예배

오후 1:30

인도 : 박일선 전도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신재준 집사	다같이
여는기도	인도자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눅 19:1-10	박일선 전도사
말씀선포	‘나는 삭개오’	박일선 전도사
기도	박일선 전도사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찬송	302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허영진 목사  
마 16:13-20 ‘나의 고백’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루문인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 PASTOR'S COLUMN 목회자 칼럼

### 박수는 사람도 움직이게 한다

예전 학창시절, 무협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협지에는 소리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음공(音功)이 종종 등장합니다. 목에서 사자 후를 토해내 상대의 기혈을 진탕시키기도 하고, 거문고 등 악기 소리로 상대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과연 실제로도 이런 일이 가능할지 궁금했지만, 물론 사실이 아닌 허구입니다. 하지만 나는 박수는 사람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과 같은 제한된 공간 하에서라면 말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일입니다, 그다지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먼저 찬양 인도자의 인도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저마다 찬양의 입술로 주님을 높이는 경배의 시간은 그 어떤 삶의 행위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값진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찬양 중, 인도자의 요청으로 박수를 치게 되었지만, 적은 인원이라 그런지 회중의 박수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마치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를 내는 박수를 쳤습니다. 이심전심이었을까요? 한 사람, 두 사람 화답하듯이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온 회중이 뜨겁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에 꼭 박수를 크게 쳐야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심을 다하는 찬양 드림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점입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행여 소멸될까 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 발상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피갈피에서 갈무리된 꿈과 지혜의 보화들은 오롯이 깨내는 자들만의 몫이기에 마음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기에 보면, “그러자 다윗과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을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하였다”(대상 13:8).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껏 뛰놀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내 돌아오는 예배 시간, 비록 박수지만 우리를 춤추게 하는 찬양이 기대됩니다.

Written by 허영진